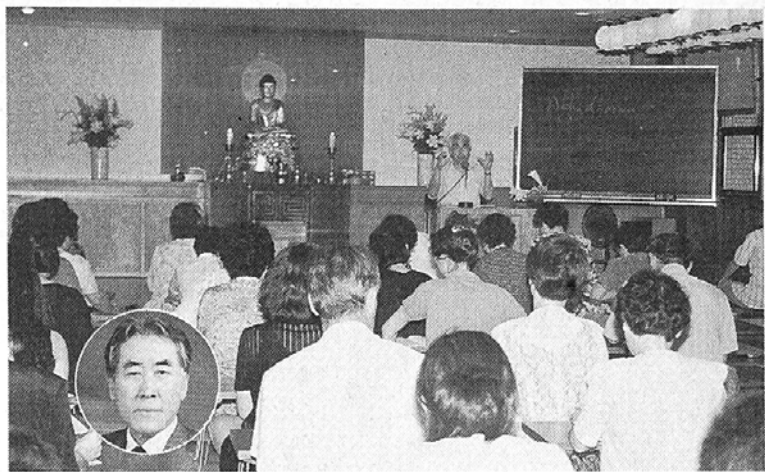


불자들은 흔히 '삼보(三寶)에 귀의(歸依)한다'는 말을 자주 하지만 정작 그 뜻을 정확히 이해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불교연구원(원장 이기영)이 지난 17일~23일 서울 개동동 연구원법당에서 마련한 '귀명(歸命)삼보의 이해와 실천' 주제의 불교기초교리강좌는 '귀명삼보'의 의미와 실천방법을 명확히 제시, 신행의 길잡이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강연요지를 간추려 소개한다. <편집자 주>



◇ 동국대 정병조교수가 지난 19일 한국불교연구원 법당에서 '삼보의 성립과 변천'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원내는 같은 주제로 강연한 이기영 한국불교연구원장.

'귀명삼보의 이해와 실천' 한국불교연구원 강좌 요지

# “신행의 바탕... 목숨건 믿음 강조”

## ‘진리배워 깨닫겠다’ 대승불교의 회향처

일반적으로 종교학에서는 종교가 성립하는 3가지 요소가 있다. 그것은 창시자인 교조, 가르침인 교리, 그리고 신도들의 모임을 교단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삼보의 개념은 종교학에서 말하는 3가지 성립요소와 같다. 즉 종교의 창시자인 교조(敎祖)를 의지하는 불(佛), 교조가 설한 교리의 내용인 법(法), 교조를 따르는 신도 단체를 의미하는 승(僧)이 그것이다. 불교의 삼보는 불자다운 삶을 유지해 나가는 근본이자 실천행이다. 삼보를 존중하고 받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4생의 어지신 어머니인 부처님, 생명의 근원이 무엇인가 일깨워주는 진리인 법, 이것을 믿고 그대로 실천하며 후대에까지 지혜의 등불을 전해야 하는 신도들... 그들은 불교의 바탕이기에 올바르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불교의 부처님은 모든 깨달은 존재를 의미하기도 해 교조의 권위를 절대화하지 않는 특성을 지녔으며, 삼보 중에 진

리의 말씀을 담은 법보를 가장 중요시 한다. 그리고 '귀의'는 근원으로 돌아간다는 뜻으로 중생의 여러 감각기관이 한마음(一心)에서 나왔으므로 생명의 근원을 찾아 근본인 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을 말한다. 부처님은 '자각(自覺) 각각(覺各), 각행원만(覺行圓滿)'이라고 불리는데, '스스로 깨닫고 있는' 면에서 보면 깨달은 그 힘으로서의 지혜가 본지(本智)를 이루고, 또 '남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이타의 면에서 말하면 자비가 부처님의 본

질을 이룬다. 또 그 지혜와 자비 두 가지가 다 원만하게 구족된 분으로서 보면 대지(大智) 대비(大悲)의 양면이 다 원만한 분을 일컫는 말이다. '법보'에서의 법(法)이란 의미하는 것 '지랑하는 것'이란 뜻으로 '진리' '가르침'이라는 용법 외에 '성질', 즉 어떤 현상을 성립시키고 있는 특성 및 그러한 성질을 지닌 존재 하나하나를 '법'이라 부르고 있다. 좁은 의미의 부처님의 가르침은 부처님께서 직접 설한 성언(聖言)으로서 이것을 아함

(阿含)이라 하고 가르침의 기본선이 된다는 의미로서 경(經)이라 한다.(형식적으로는 如是我聞으로 시작되어 信受奉行으로 끝난다) 대승불교가 성립하고 난 뒤에는 '아함'이 대승경전에 대한 원시불교성전을 가르키는 명칭이 되었다. 그러나 넓은 의미로는 제자나 후세 사람들이 경의 뜻을 해석한 논(論; 또는 법의 해석을 의미하는 아비달마라고도 함)과 교단의 규칙을 집성한 율(律)이 있으며 경 율 론을 합해 삼장(三藏)이라 부른다(藏이란 全集의 뜻). 이것이 불

을 주는 길로 나아가는 화합교단을 이루어야 한다. 따라서 승가는 바로 화합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출가와 재가 수행자들은 각자의 뼈를 짚는 수행에서 얻어지는 고고한 정신의 빛을 이사회 속에 흘러 넘치도록 해야 한다. 우리 삶의 현장은 대승불교의 회향처(廻向處)가 돼야 한다. 때문에 불자들은 생활현장이 곧 보살정신을 함양하는 실천도량이란 자부와 긍지로서 일상 속의 수행을 계속해야 한다.

김재경 기자

삼중이파트 붕괴사건과 같은 대형 참사는 희생자도 많은 뿐만 아니라 실족 목숨을 건진다고 해도 의상으로 인한 스트레스의 심각성은 대단하다. 이런 악몽같은 스트레스를 받

때문이란 의학적인 주장과 재앙의 지각은 주관적으로 개인에 의해 판단된다는 이론이 설득력을 지닌다. 먼저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은 생존자를 가운데 대개 25% 수준의 사람들이 급성스트레스 장애를 앓게 된다는 통계가 있다. 우선 삼중이파트에 대입시켜 보라. 어떤 형태의 정서와 행

숙에 감했다는 상상 때문에 전율스런 경험을 체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떤 정서적인 반응이던 행동은 결국 자신의 유기체를 살아남도록 배려하는데서 일어나는 무의식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다. 대부분 사람들은 불안이나 상황에 대한 공포를 경험하게 되는데 실제 상황이라면 그보다 훨씬 심각한 공포반응이 일



### 스트레스장애

고도 결과가 관철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로 인해 광상도 있게 마련이다. 그 이유는 다분히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개인의 행동적 적응 양식이 다르기

때문이란 의학적인 주장과 재앙의 지각은 주관적으로 개인에 의해 판단된다는 이론이 설득력을 지닌다. 먼저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은 생존자를 가운데 대개 25% 수준의 사람들이 급성스트레스 장애를 앓게 된다는 통계가 있다. 우선 삼중이파트에 대입시켜 보라. 어떤 형태의 정서와 행

때문이란 의학적인 주장과 재앙의 지각은 주관적으로 개인에 의해 판단된다는 이론이 설득력을 지닌다. 먼저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은 생존자를 가운데 대개 25% 수준의 사람들이 급성스트레스 장애를 앓게 된다는 통계가 있다. 우선 삼중이파트에 대입시켜 보라. 어떤 형태의 정서와 행

때문이란 의학적인 주장과 재앙의 지각은 주관적으로 개인에 의해 판단된다는 이론이 설득력을 지닌다. 먼저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은 생존자를 가운데 대개 25% 수준의 사람들이 급성스트레스 장애를 앓게 된다는 통계가 있다. 우선 삼중이파트에 대입시켜 보라. 어떤 형태의 정서와 행

때문이란 의학적인 주장과 재앙의 지각은 주관적으로 개인에 의해 판단된다는 이론이 설득력을 지닌다. 먼저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은 생존자를 가운데 대개 25% 수준의 사람들이 급성스트레스 장애를 앓게 된다는 통계가 있다. 우선 삼중이파트에 대입시켜 보라. 어떤 형태의 정서와 행

## 만화 법구경

\* 폭력의 장 \*

남을 죽이거나 죽게 하지 말라

이 향원

와이셔츠 단추 하나가 없잖아  
어머니 이리 주세요 금방 달아 줄게요

시간없어 다른것 내 봐  
다림질 된게 없는데...

이 여편네가 집구석에서 뭐 하는게 있다고 그런것 하나 생겨 놓지 않고 있어!

그때! 난 놀기만 한다  
아니! 이게 어딜 대들어

아빠  
아이가 왜 이래

아이를 그렇게 아끼고 있는데...  
이제 그만두고 집에 오라

아이고... 아미야 바... 밥 차리다

죽은 것은 폭력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한다 이 이치를 자기 몸에 건주어 남을 죽이거나 죽게 하지 말라

죽은 것은 폭력을 두려워하고 안전한 삶을 사랑한다 이 이치를 자기 몸에 건주어 남을 죽이거나 죽게 하지 말라

세월이 흘러...  
여보 같이 나가  
응 빨리와

오늘 네 아버지 세상날 이다  
알고 있어요

세백부터 허리가 또 푸시는 구나  
그거 약 먹어도 소용 없잖아요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모든 생명은 안락을 바라는데 폭력으로 이들을 해치는 자는 자신의 안락을 구할지라도 뒷세상의 안락을 얻지 못한다

모든 생명은 안락을 바라는데 폭력으로 이들을 해치지 않고 그 속에서 자신의 안락을 구하면 뒷세상의 안락도 얻게 되리라

# 성아출판 TEL 778-6825-7 FAX 778-0828

## 42장경

1. 그대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2. 삶의 해변에서 모은 조각돌

42장경은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해져는 하나의 방법이다. 인류 최고의 사상인 불교를 중국에 소개하기 위해 인도의 불교 승승들은 붓다의 가르침을 모아 42권의 시로 묶었다. 대부분의 불교 경전들이 대단히 방대하고 난해한 반면에, 42장경은 단순하고 직설적이어서도 알기 쉽게 불교의 정수를 담고 있다. 이 책은 붓다의 42장경을 항목마다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오소의 원상적 깨달음과 특유의 농담, 재치 있는 우화를 곁들여 읽게 위울 수 있는 진본이다.

내가 도를 지켜 큰 자비를 행한다는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이 일부러 찾아와 나를 비난한다. 그러나 내가 침묵을 지키고 대답하지 않더니 그는 비난하기를 그쳤다. 그때 내가 그에게 물었다. "만일 당신이 이웃에게 선물을 가지고 갔으나 그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다시 그대에게 돌아가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지금 당신이 나를 욕했지만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당신은 그 욕을 자신에게 한 것이다." -본문 중에서-

### 붓다가 되시려는 모든 분께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그대에게 보석을 준다면 평소와 그대 재물을 탐하기 때문이고, 웃음을 준다면 그대기 다른 사람을 늘 기쁘게 하기 때문입니다.

42장경을 그대에게 소개하는 것은 그대기 붓다를 이해할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소 리즈너 강역 황광우 이강국 옮김  
신국문 전2권 / 각권 7,500원

# 대중 불교 9월호

정반의 눈  
석복소의 미용의 정치 / 정경희  
특집 20주기 추모특집  
고 대한 장경호 저서의 삶과 권력/이종림  
특집기획 우리 속의 왜색문화  
'우리' 만화를 위한 변모 / 정준영  
화두 속에 담긴 부끄러운 역사 / 박영하  
개발의 빈곤과 수입의 과잉 / 김남석

함께 이루는 청정국토  
생명의 모태, 바다가 죽는다 / 성나진

오늘의 눈으로 읽는 전통문화  
얼과 문화 경주남산의 감성 부처/김홍범 김삼림  
폐사지를 찾아서  
강화 봉은사지 / 김성영 최태신  
불교와 민속 불교와 꼭두각시놀이/김중대  
점토와 오늘 사이  
함께 사는 사회의 불가명철/서동석

오늘 여기에서 말씀대로 살기  
대중불교의 빛을 찾아서  
건축사학자 신영훈 씨 / 김희균  
수행으로 가는 길(6)/삼석각  
바른 기도와 명언 / 이재열  
생활불교, 어떻게 할 것인가(9)  
대승의 꽃 보시 바라밀 / 용타  
교리산책/업(9) 정명과 부정명 / 정승서  
예세이 보살불교(9)/지장보살(2)

지옥은 실존이다 / 일지  
나의 수행담  
물러설 수 없는 캐즘의 세계로 / 대원성  
스님께 들었습니다  
업불하는 마음이 곧 극락이요 / 태원·김희균

일상을 깨우는 신문들  
수행길의 이런 도반  
푸른 대추 같은 청화 스님 / 효림  
관심사의 그늘  
양 다리 밑에 하늘이 있고/정복주  
포도밭 일기 부처님의 다이어트 법 /원욱  
한조각 깨달음이 있는 수필  
정복주·이시윤·정준석

해의 불교 읽기  
한성시와, 티벳(영성과 비극의 나라/김신정  
모스크바의 원불교 한글학교  
비리진 땅에서 일어난 고려인을 위하여/김희균  
봉주우르, 김상 도요 전각교실 / 지희

떠어나가는 불교  
포교의 현장 불교생활문화 터전 뒤는 노원구  
법륜상사 / 오영숙  
신행단체 대한불교청년회 경남지구 산해인지부 / 황용수

정기구독신청은  
(02)773-5731, 754-1614